

**법무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을
「중양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업무 등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6. 5. 14.(목)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양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위원장: 출입국정책단장)를 개최하고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중양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19년 3천 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2026년 10만 명을 넘을 예정이어서(약 33배 증가), 지방정부의 자체 역량으로만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중양 계절근로 전문기관」은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 계절근로 제도 연구와 모니터링,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보다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은 낮추고,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올해 계절근로 배정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며,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계절근로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다” 고 밝혔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지역체류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병철 (02-2110-4217)
		담당자	사무관	박정석 (02-2110-4087)

